

#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

미전도 종족 이웃에게  
다가가는 복음

정헌범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ession 4: 먼저 친구 되기  
(Friendship First)

## contents

session 1: God's Kingdom . . . . .	1
session 2: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 . . . .	15
session 3: 세계관과 선교 . . . . .	32
Lecture on Worldviews and Mission by Paul S. Chung PhD.	
session 4: 먼저 친구 되기 Friendship First . . . . .	40
session 5: Sponsorship & Partnership Together . . . .	54
session 6: Team Work & Leadership . . . . .	69
session 7: 생활 속의 선교 Here & Now . . . . .	87

Copyright ©2019 by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CMCA)

All Rights Reserved

만약 CMCA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의 교재 및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허가를 받으십시오.

연락처:

Rev. Lordwin Lim, Director

Email: namca.allnations@gmail.com

## [ session 4: 먼저 친구 되기 (Friendship First) ]

###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 누가복음 16:9-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 (11절의 ‘참된 것’과 대칭) 을 지혜롭게 사용하였다고 칭찬하는 주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이 맡긴 재물로 자기를 위해  
- 주인에게 빛진 자들의 빛을 탕감해 주며 - 친구를 사귀면서 앞날을 준비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재물을 사용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한 성도로 살지 말고 -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 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십자가 사랑, 구원, 부활, 영생)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하시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하신다.

즉 세상 재물로 친구 사귀기를 아까워한다면 - 충성하지 않는다면 -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것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 을 사용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 친구로 사귀어 - 주께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기독교인을 경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른 종교와 무신론자들과 기독교에 적대하는 세력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들 (십자가 사랑, 부활, 믿음, 재물, 시간, 재능, 은사, 건강 등) 을 우리 (나, 가족, 우리 공동체) 만을 위해서 사용할뿐 담장 너머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는 성도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타 문화권 이웃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상처주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을 적대하는 대상이 되게 만든 우리들의 지혜롭지 못한 -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 과거의 삶 (생각과 행동 그리고 반응들)을 회개하며 자기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던 불의한 청지기과 같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야 하겠다.

## 1. 땅끝에서 다가온 이웃

	2011 년	2036 년
이민자/캐나다 총인구 - 이민자/도시별 총인구	41.1% (2016)	Toronto: 46%~52.8% Vancouver: 42.1%~48.5% Calgary: 32.7%~40.8% Montreal: 28.4%~34.2% Winnipeg: 29.2%~40.5%
외국 출생 이민자/총인구 외국 출생 및 자녀/총 인구 - 도시별 총인구 대비	20.7% 38.2%	24.5%~30% 44.2%~49.7% Toronto: 77%~81.4% Vancouver: 69.4%~74%
도시 거주/총 이민자 - 도시별 거주/총 이민자	90%	91.7%~93.4% Toronto: 33.6%~39.1% Montreal: 13.9~14.6% Vancouver: 12.4%~13.1%
아시아 출생/총 이민자 중동 출생 포함 유럽 출생/총 이민자	44.8% 70% (2016) 31.6%	55.7%~57.9% 15.4%~17.8%
비 기독교인/총 인구 종교별 인구/총 인구	9%	13~16% Muslim: 5.6%~7.2% Hindu: 2.5%~2.9% Sikh: 2.3%~2.7%
캐나다 언어 영어 사용 인구 불어 사용 인구 영어 아닌 모국어 사용	200 여 언어 58.7% 21.3% 20%	52%~56% 17%~18% 26.1%~30.6%
캐나다 총 인구 (2018) 캐나다 거주 종족 (2018)	36,963,854 273 종족	

Sources: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70125/dq170125b-eng.htm>

캐나다는 모자이크 사회답게 273 종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미전도 종족만 50종족에 이르고 있다. (source: Joshua Project) 2036년에는 2세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91.7%~93.4%)이 도시에 살며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에는 이들 중 44.2%~49.7%가 집중되어 살게 된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교는 대상자들을 향하여 가는 ‘해외 선교’였다면 이제는 Global 시대를 맞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민, 유학, 취업, 난민, 여행 등으로 우리 곁으로 불러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국내 선교’도 가능한 시대다.



## ‘여기서 지금’ (HERE & NOW) 선교할 수 있다



네팔 친구들과 함께



네팔 공동체 연합 성탄절 예배와 교제

선교는 중, 장기로 헌신하는 선교사나 단기 선교팀이 해외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민, 유학, 취업, 이민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온 온 타 문화권 사람들을 매일 삶의 터전에서 만나고 있지만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한다고 알고 있어도 우리끼리만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담장을 넘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장애물이 되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다.

모자이크 선교 훈련은 이러한 선교에 대한 편견과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거나 피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서 지금 (HERE & NOW)’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다.

here&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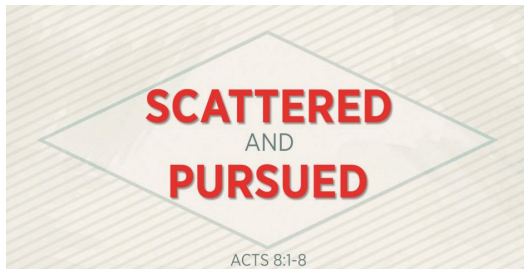
## 2. 우리끼리만의 담장을 뛰어넘어 먼저 친구가 되자

먼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기도 전에 사역하려는 것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이라크 난민 Ihsan Jaro와 친구되어 아랍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The Springtime of My Life has come:

<http://www.cmcaallnations.org/our-stories/>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 사도행전 8:1 -**

‘사도 외에는 다’라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진 전문적인 직무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온전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나가야 하는 보여 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도 이민, 난민, 유학 그리고 취업 등으로 우리 곁에 온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당황스러운 일이 많으며, 우리는 함께 어울릴 친구나 이웃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끼리만 만나고 즐기던 삶을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정착을 위해 수고하며, 이웃과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타 문화권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 살기로 결단하자.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12 제자에게 자신의 삶을 쏟으셨다. 우리도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처럼 되고 그들 곁에 함께 있으면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처럼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는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골로새서 3:17 -**

## 모두를 사랑할 수 없다 - 이웃을 사랑하자



CMCA

PAGE 5

세상 모든 종족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웃의 친구는 될 수 있다

타문화권 종족들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 1. 타 문화권 이웃과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Sue & Frank와 친구가 되어 태국 교회를 세운 이야기 (Tears turned to Songs)

<http://www.cmcaallnations.org/our-stories/>

- 하나님께 친구로 사귄 타 문화권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타 문화권 이웃, 동료, 고객을 만난 전후 또 만남 중에도 계속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를 알려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 개종 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자.
-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된다.
- 그들의 종교와 영적인 것에 대한 경험을 존중하며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

## 2.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친구가 되자

고향을 떠나온 타문화권 사람들은 사랑과 친절에 목말라 있으므로 그들을 존중하며 서로 친구가 될 때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며 이 때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 안에서 효율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

- 그들의 생일 및 경조사를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 운동, 산책, 음악, 영화 등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즐긴다.
-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행한다.
-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 최근 이민 온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 그들이 좋아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겸손히 인정하고 사랑한다.
-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믿으면 문화적으로 실수를 해도 우리를 받아준다.
- 우리가 그들을 알고 존중하면 문화적 실수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우리의 문화적 뿌리가 Christian과 서양인들의 문화와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대화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각 종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 모습



### 3.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대함으로 나누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 사도행전 2:44-47 -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 타문화권 이웃의 어려움과 불행에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되자.
- 세상의 재정 원칙은 사고 파는 것이지만 성도의 재정 원칙은 거저 주고 받는 관대함이다.
- 주 안에서 베푸는 관대함은 사랑의 빛 외에는 빛졌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고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한다.
- 서로 관대함으로 베풀며 살 때 베푸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

“...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 고린도후서 8:3~4 -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 시편 37:25~26 -

### 4. 타 문화권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자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들과  
타문화권 성도들과 연합 피크닉

## 타문화권 이웃과 음식 교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 계시록 3:20 -

차, 커피,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이상으로 이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손을 사용하시어 타문화권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문을 열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고 믿는다.

- 우리끼리만 마시던 차와 커피를 타문화권 친구와도 함께 마시자.
- 우리끼리 축하하고 즐기던 생일, 가족 또는 교회 모임에 그들을 초청하며 우리도 그들의 행사에도 즐거이 참석하자.
- 새해,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자.
- 우리 음식 요리법 (김치, 불고기 등)을 나누고 그들의 요리도 함께 배우며 교제하자.
- 피크닉,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교제의 폭을 넓혀가자.

## 5. 주 안에서 타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자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 잠언 20:5 -

- 잘 듣는 것이 우정의 시작이다.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며 상대방 이야기 중에 끼어들어 상대방의 생각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 간단한 인사와 함께 경계심이 없도록 편하게 일상 생활 이야기 (날씨, 스포츠, 음식, 언어 등)를 나누자.

-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한달에 한두번은 만날 기회를 만들자.
- 자주 만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생활 속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자.
- 자녀들의 부모와 만나 자녀 양육에 대해 대화하며 교제하자.
- 시간이 흐르면 이민, 직업, 관심사, 가족 이야기 등으로 친밀함을 높이자.
- 경청하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질문을 하면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
-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사랑을 마음과 몸으로 표현해 보자.
- 그들이 영어를 잘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어 때문에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품어주며 그들의 인사말과 간단한 단어들을 배우며 이야기해 보자.
- 서로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나누자.
- 서양 및 기독교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간증이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것이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 잠언 18:13 -

### 3. 문화의 민감성을 기르는 9가지 단계



CMCA 문화 축제 참가 종족 단체 사진



문화 축제 참가 종족별 문화 전시 부스

## 디아스포라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1. 언어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타 문화권 종족들과 만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그들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존경심과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국 땅에 와서 문화적 충격과 그들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로 두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소유한 친구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다.
3.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여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과 같이 그들에게 중요하다.
4. 그들의 모국에 대한 자존심과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이유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5.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6. 영어를 잘 하는 분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여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잘 못한다면 이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이민자로서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7.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8.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9.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며 오해의 소지를 피해야 한다.

## 4. 유학생 및 청소년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의 77%가 21세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통계 (2004년 Bana Group Study)가 있는데 이는 열린 마음으로 있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원 선교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북미 유학생들과 Cambodia 독재자 Pol Pot

### Pol Pot 이야기:

캄보디아의 독재자 Pol Pot는 정치적인 이유로 250여 만명의 자기 동족을 학살, 기아 등으로 죽게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잔학한 비극을 주도한 Pol Pot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 때 프랑스의 한 성도라도 그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캄보디아의 killing fields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Pol Pot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미래를 이끌어갈 유학생 또는 이민 온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 지도자를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모판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은 언젠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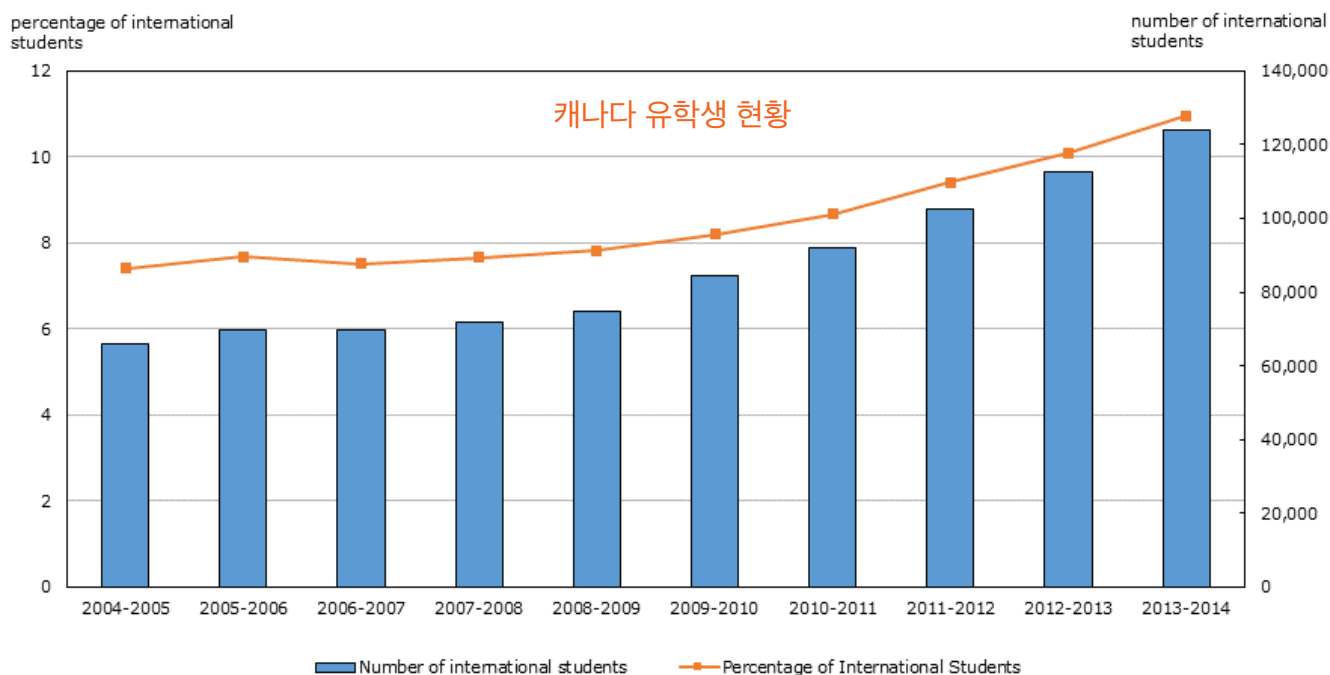
- 가정을 복음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에 그들은 복음에 가장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세계를 복음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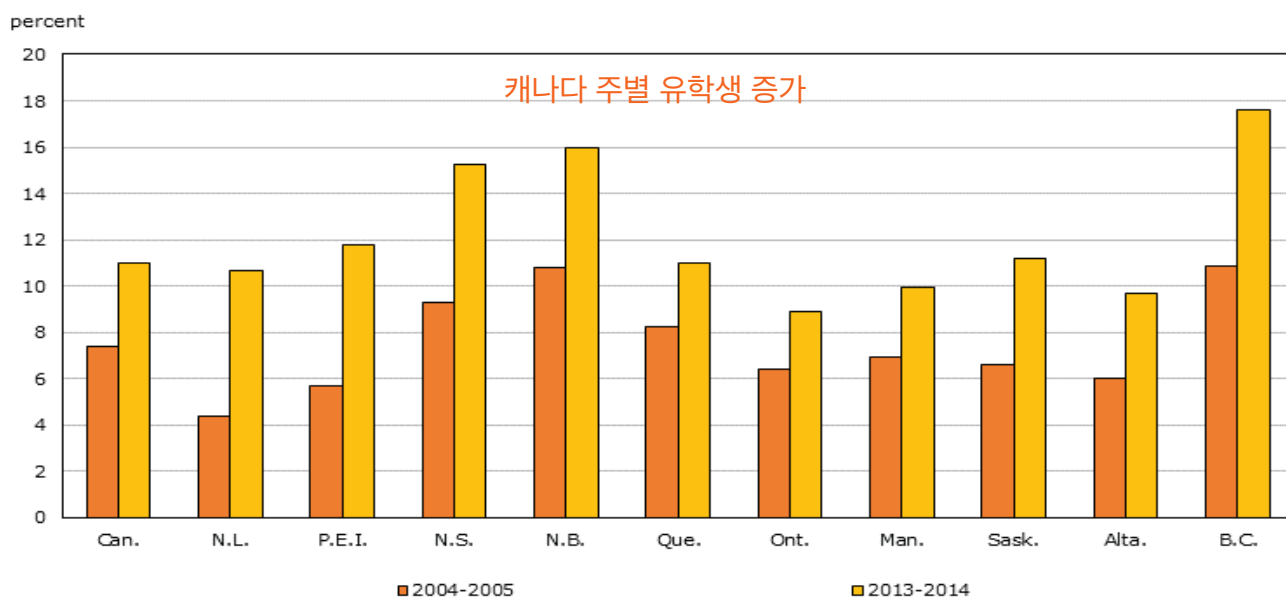
학교는 점점 다민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서 각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방을 복음화 시키는 것이다.





Source: Statistics Canada, Post-secondary Student Information System (PSIS), 2004-2005 to 2013-2014.

캐나다 대학 총학생 수에서 유학생의 비율은 7% (2004~2005)에서 11% (2013~201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학생수는 66,000명 (2004-2005)에서 124,000명 (2013-2014)로 88% 증가했다. 반면에 캐나다 출신 대학생 증가율은 22%였다.



Source: Statistics Canada, Post-secondary Student Information System, 2004-2005 to 2013-2014.

2004-2005년에서 2013-2014년에 주별로 대학 유학생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British Columbia는 +6.7, 대서양 연안주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and New Brunswick)는 +(5.2~6.3) 증가 그리고 Saskatchewan은 +4.6 만큼 증가했다. 2013-2014년에 총학생 중 유학생 비율은 Ontario, Alberta와 Manitoba 가 8.9%, 9.7%와 10.0%로 가장 낮으며 상대적으로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과 Nova Scotia 17.6%, 16.0%와 15.3%로 가장 높다.

## 미국 유학생 현황

미국의 유학생 수는 886,052명이고 유학생의 62%가 10/40 Window 국가에서 왔으며 68개국에서 451,568명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유학생 상위 10개국: China, India, South Korea, Canada, Taiwan, Saudi Arabia, Japan, Vietnam, Mexico, Turkey)

세계 220여 개국의 국가 원수 중 40%가 미국에서 한 번 이상 공부한 사람들인데 유학생의 80%가 미국인 가정에 한 번도 초청받은 적이 없고 평균 4년의 거주 기간 동안 85% 이상이 북미에 있는 기성 교회에 초청되거나 Christian들과 의미있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유학생 중 오직 10%만이 미국에 있는 동안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는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한 유학생에게라도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가족, 공동체 그리고 모국으로 돌아가 얼마나 큰 영적 영향력을 끼칠지 상상할 수 있다. (Source: TheTravelingTeam.org - International Students in USA, 2013~2014)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민, 취업 그리고 난민으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부분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찾아가 도우며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것은 그들과 영적 친구 또는 영적 부모가 되어 섬길 수 있는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 5. 친구 가운데 신실한 성도를 찾아 모자이크 선교 비전을 나누라

이제 서로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겨야 한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면 그들 종족 안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나누며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삶에서 적용하기

이웃이나 직장 동료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과 함께 커피나 식사를 하며 친구로서 관계를 맺어가자.

**기도: 주님, 지금까지 우리 가족, 친구들끼리만 즐기고 교제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타 문화권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